

빨라진 반도체 회복시계... 폰 시장 녹인 '갤럭시 폴드'

삼성전자 실적 해부

4분기 영업이익 34% 줄었지만
시장선 회복 기대감에 주가 ↑
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조짐
스마트폰·가전 실적개선 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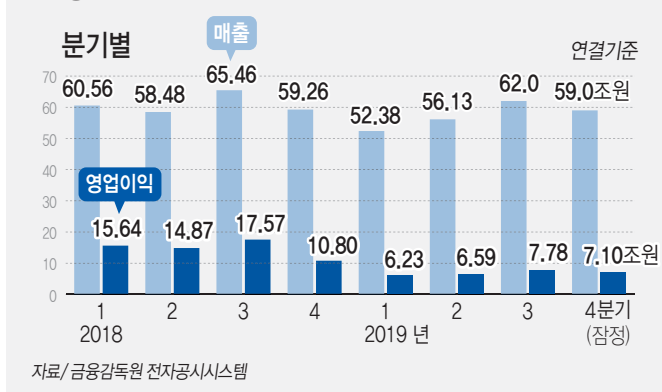
삼성전자가 4분기 반등을 확정하며
올해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.

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
8일 공시했다. 매출액 59조원에 영업이익
7조1000억원이 예상됐다.

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성적
이긴 하다.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은
0.46%, 영업이익은 34.26%나 줄어든
수치다. 전분기와 비교해도 각각
4.84%, 8.74% 줄었다.

그러나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연속
으로 영업이익 7조원을 넘어섰다는 점
은 주목할만하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1
~2분기에는 6조원대에서 머물다가, 3
분기 들어서 7조원대를 다시 되찾았다.
전년비 변동폭을 보면 실적 개선은

삼성전자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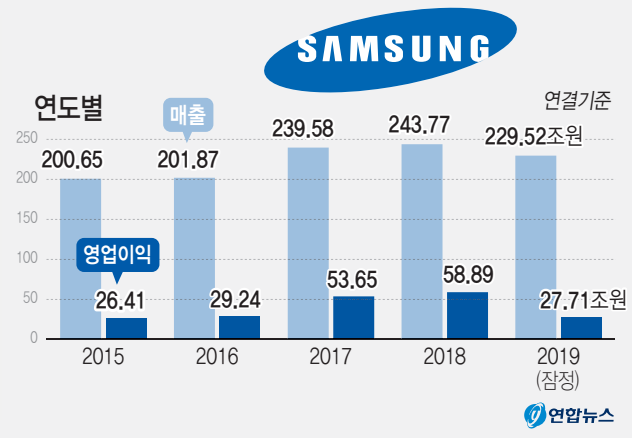
더 분명하게 확인된다. 삼성전자는 지
난해 전년비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-
60.15%, 2분기에는 -55.63%, 3분기에는
-55.75%를 기록했었다. 4분기에는
거의 절반 가까이 회복한 셈이다.

매출액 역시 1분기에는 -13.5%, 2분
기에는 -4.03%, 3분기에는 -5.28%로
저조했다가, 4분기 들어서는 -0.46%로
거의 전년 수준을 따라잡았다.

시장 기대도 충분히 충족했다. 최근
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회복론이 이어지
면서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
을 잇따라 높여잡은 바 있다. 실제 실

적도 거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
록하면서, 이날 삼성전자 주가도 가파
른 상승세를 나타냈다.

삼성전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
던 이유는 단연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
복이 꼽힌다. 지난해 3분기가 끝날 무렵
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시적으로
늘었고, 판매 가격도 반등할 조짐을 보
였다.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이미 가격
이 오르기 시작한지 오래, DRAM도 최근
들어 '바닥'을 찍었다. 채고도 정상에
가까운 4주 수준을 회복했다고 알려졌
다.



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삼성전자 실
적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
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10과 갤럭시
노트10에 이어 갤럭시 폴드까지 발표하
면서 얼어붙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
활력을 일으킨 주인공이다. 미중무역분
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중저가폰 시
장에서 크게 활약했다.

가전 부문 역시 실적 개선에 주요했
다는 평가다. QLED TV가 경쟁 제품
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
확대하는 가운데, 세탁기와 건조기 시
장에서 경쟁사 품질 이슈에 따른 판

매량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. 비스포크
냉장고 등 라이프스타일 신가전 역시
글로벌 시장 인기 물이에 성공했다.

디스플레이 부문만은 다소 주춤했
을 가능성이 높다. 중국산 LCD 패널 공세
가 더욱 심화하면서 경쟁력 약화에 따
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
다. 지난해 구조조정과 신사업 투자를
개시하긴 했지만, 효과를 보기 위해선
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.

올해 실적 기대도 크게 높아졌다. 올
해 5G 보급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, 인
텔 CPU 공급 재개 등 호재들이 메모리
시장에 다시 한 번 '슈퍼 사이클'을 기
대케 하는 데다가, 삼성전자가 미래 먹
거리로 선정한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
등 분야도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위기
다. 특히 반도체 시장은 올해 크게 반등
해 내년에도 또다시 신기록을 세울 것
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

한편 SK하이닉스도 이날 반도체 회
복 기대에 따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
했다. SK하이닉스는 오는 31일 2019년
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.

/김재용 기자 juk@metroseoul.co.kr

기대 높았나... 영업이익 30% 급증에도 전망치 크게 밀돌아

LG전자 2019년 4분기 실적

매출 16조610억... 전년 비 1.8% ↑
영업익 증권사 전망치보다 87% ↓
올레드 TV 등 가전 판매저조 기인

LG전자가 뜻밖의 저조한 실적을 기
록했다.

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
16조610억원, 영업이익이 986억원을 기
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.

전년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
이었다. 매출액은 1.8% 증가했고, 영업이익
은 30.3%나 급증했다.

그러나 시장 기대보다 훨씬 낮은
성적이 충격을 가져다줬다. 업계에 따르
면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매출액 16조
5000억원, 영업이익 2800억원이었다.



LG전자 트윈타워 빌딩. /뉴스시스

매출액은 비슷했지만, 영업이익은 3분
의 1에 불과했다. 전기와 비교해도 매출
액이 2.3% 늘긴 했지만, 영업이익은

87.4%나 쪼그라들었다.
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레드 TV 판매
가 저조했던 데다가, 건조기 사태에 따

른 영업비용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하락
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.

그나마 2019년 성적은 나쁘지 않았
다. 매출액이 62조3060억원으로 3년 연
속 6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. 전년(61조
3417억원)보다도 1.6% 성장하면서 연
간최고치를 갈아치웠다. 영업이익도 2
조432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
던 전년보다 10% 적은 수준을 지켜냈
다.

올해 전망도 어둡지 않다. LG디스플
레이가 광저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
올레드 TV 가격 하락 및 판매 증가가
예상되는 상황에서, 공기청정기와 스타
일러 등 신 가전에서도 적지 않은 수익
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5G
보급에 따라 스마트폰 V50 판매 증대
가능성도 높다. /김재용 기자 juk@

BMW

전문구동 최초 적용 뉴 1시리즈 韓 출시

BMW가 1시리즈를 국내에 출
시한다고 8일 밝혔다.

1시리즈는 컴팩트 해치백 모델
로, 2004년 후 200만대 이상 판매
됐다. 모델 최초로 전문구동 방식
으로 실내 공간을 넓히고 '진정한
운전의 즐거움'을 갖췄다.

4기통 디젤엔진이 힘을 내며, 최
고출력 150마력에 최대토크 35.69
kg·m을 발휘한다. 스텝트로닉 8
단 변속기를 조합해 효율도 극대
화했다. 복합연비는 14.3km/l다.
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장치(AR
B)도 내연기관 최초로 적용했다.

실내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으
로 디자인했다. 모델에 따라 센
사틱 스포츠 시트와 알칸타라 M
스포츠 시트를 적용했으며, 모든
모델에 고성능 후면발광 인테리
어 트림인 '일루미네이티드 인테
리어 트림 피니시'를 탑재했다.

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로
디자인한 BMW 라이브 콕핏 프
로페셔널로, 10.25인치 디스플
레이와 고해상도 계기판을 보
여준다. 가격은 뉴 118d 조이 퍼
스트 에디션 4030만원, 뉴 118d
스포츠 4280만원, 뉴 118d M 스포
츠 4640만원, BMW 샵 온라인
에서 한정 판매되는 뉴 118d
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4940
만원이다. /김재용 기자



대륙 강타한 요스타 '명일방주' 韓 상륙... 中 흥행 잇나

중국 출시 한달 만에 앱스토어 1위
디펜스 장르 결합해 재미 '극대화'

중국 대륙서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
어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인기를 끈
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두
고 있다.

글로벌 게임업체 요스타는 8일 서울 C
GV첨담씨네시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
고, 하이퍼그리프가 개발한 '명일방주'
를 오는 16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.

명일방주는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출
시된 모바일 역할수행게임(RPG)으로
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
를 기록하기도 했다. 디펜스(진지방어)
장르를 결합해 재미를 극대화했다. 국



요스타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'명일방주'를 소개하고 있다. /요스타

내 및 일본 등 글로벌 사전예약자 수도
100만명을 달성했다.

명일방주는 '재앙'으로 황폐화 된 세
상에 등장한 광물 '오리지늄'과 이를 들

러싼 사투를 다룬 모바일 게임이다. '디
펜드', '스나이퍼', '메딕' 등 총 8종의
다양한 오퍼레이터 클래스가 존재하
며, 캐릭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시
킬 수 있다.

명일방주 서비스 퍼블리싱을 맡은 요
스타는 2014년 설립됐으며, 중국 상하
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.

요스타 요몽 대표는 "명일방주는 중
국서 출시 한달 만에 앱스토어 매출 1위
를 차지하는 등 현재 호평 속 인기 지식
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바일 게
임"이라며 "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유
저와 함께 나누자"는 경영 철학을 실행
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이날 요스타는 아포칼립스

느낌의 게임 세계관이 담겨있는 2분 가
량의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풀 버전을
공개하기도 했다.

업계에서는 명일방주가 국내 시장에
정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. 미소녀 캐릭
터를 앞세운 중국의 '소녀전선'도 마니
아 층을 겨냥해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거
둔 바 있다. 다만, 요스타는 소녀전선과
는 선을 그으며 명일방주의 게임성을
강조했다. 요스타 관계자는 "명일방주
와 소녀전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
비교가 어렵다"며 "명일방주는 전략성
을 극대화 했고 스타일이 독특하다는
점이 특징"이라고 말했다.

요몽 대표는 "한국 법인을 세우는 것
은 간단치 않고 절차가 복잡해 알아보고
있는 중"이라며 "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
서도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
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 /김민기 기자 silnki@